

법무법인(유) 지평은 2000년 설립 이래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의 법률고문으로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축적해왔으며, 다수의 국내·해외 기업의 기업공개(PO)와 해외증권발행 등 국내외 ECM 시장에서 탁월한 업무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다양한 상장폐지 사유(감사의견거절, 횡령배임 등)에 직면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최적의 상장적격성 유지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. 지평은 Value-up 기치아래 진행되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 상장적격성 유지가 필요한 상장기업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, 2025년 2월 채남기 고문(前 한국거래소 부이사장)을 센터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.

강력한 거래소 네트워크와 전문성

본 센터는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면서 유가증권 시장본부 부서장, 코스닥시장본부 상무,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장(부이사장)을 역임하고, 한국R협의회 회장(2022년~2024년)을 역임한 채남기 고문(센터장)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상장기업에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장유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 본 센터에는 한국거래소 상장, 실질심사, 공시업무 담당 임원을 역임한 김병률 고문(前 한국거래소 상무),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및 상장공시위원을 역임한 이행규 대표변호사,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심사팀장 및 상장제도팀장을 역임한 장영은 수석전문위원(회계사)을 비롯하여 30여명이 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.



종합적 분석 및 원스톱(One-Stop) 솔루션

상장유지 솔루션 및 성공사례

본 센터는 법률, 회계, 포렌식, 내부조사, 소송 등 자문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원스톱(One-stop) 상장유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주요 성공사례로는 (주)좋은사람들, MP그룹, 진흥기업, 세화아이엠씨 등 난이도 높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기업에 성공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포티스, 코센, 핸디소프트, 베셀, 경남제약헬스케어, 한전산업개발, W, KD건설, 바른전자, 데코앤이, STX, 보루네오가구, 나노스, 메이슨캐피탈 등의 상장폐지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.

Main Contacts

- 채남기 고문(센터장) Tel. 02-6200-1948 E-mail, nkchae@jipyong.com
- 이행규 대표변호사 Tel. 02-6200-1744 E-mail, hglee@jipyong.com
- 장영은 수석전문위원/공인회계사 Tel. 02-6200-1859 E-mail, yejang@jipyong.com